순천 명신대 '비리 백화점'

총장 등 30명 적발

편입생 모집 478명에 11억원 편취

교수채용 14억 · 학교자금 7억 횡령

친인척이 총장직 등 주요 직위를 독차지 한 채 교직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고 등록금을 빼돌린 기업형 부패사학이 적발됐다. 학생 모집에 동원된 일부 교수들과 결탁해 학생 소개 명목으로 돈을 받은 목사와 대학교수 등도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순천 명신대학교 총장 이모(78)씨와 이씨의 외조카인 총무처장 윤모(58)·입시처장 김모(50)씨 등 3명을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학교 조모(여·48) 교수 등 학교 관계자 27명을 사기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장 이씨와 총무처장 윤씨는 지난 2005년 교직원 15명을 채용하면서 1인당 8천만~1억4천만원씩 모두 1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임용 과정에서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 비자금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총장과 총무처장, 일부 교수들은 2006년도 편입학생을 모집하면서 이들이 산학협력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꾸며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129만~338만원씩, 478명의 편입학생 등록금 절반인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 모집을 위해 영세 자영업소나 교회 명의를 빌리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산학 협약을 맺었고, 소개비 등을 주겠다며 목사와 회사 관계자 등을 설득해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마련된 '계약학과제도'를 철저히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일부 학과를 '계약학과'로 정해 산업체 근로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등록금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업체가 부담한다.

이 총장 등은 '계약학과' 편입학 학생들에게 위조된 등록금 납부안내서를 보내 등록금의 절반이 아닌 전부를 내게 했고, 돈은 교수들의 개인계좌로 보내도록 한 뒤 이 가운데 절반만 학교 법인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

이 총장은 또 지출결의서 등 서류를 위조해 학교 예산 7억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등록금 납부 안내문이 위조됐고, 교수 개인계좌로 등록금을 입금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압수수색과 피해 학생 478명을 상대로 범행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직원 채용 비리와 예산 횡령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부부와 친인척이 대학총장과 재단이사장, 총무처장 등 학교 주요보직을 모두 독차지해 운영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계약학과 제도를 철저히 악용한 만큼 계약학과가 설치된 다른 대학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보성 차밭 140m 대형 트리 '점등'

보성군 회천면 봇재다원 차밭에 높이 140m·폭 150m의 대형 트리가 10일 불을 밝혔다. 이 트리는 50여만 개의 LED 조명으로 내년 2월 말까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보성군은 또 연인과 가족을 위한 '은하수 터널 산책로' '사랑의 포토존'(녹차 마차) 등 이색 체험 거리도 조성했다. /보성=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총기 탈취' 수사 장기화 조짐

한때 유력 용의자 무혐의로 밝혀져

강화도 총기 탈취사건을 수사중인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범인의 DNA를 확보한 후 용의자를 좁혀나가고 있지만 사건발생 5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할 수사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대선정국을 긴장시키는 이번사건은 이에 따라 자칫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본부는 10일 오전 유력 용의자로 떠오른 서울 거주 30대의 A씨에 대해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였으나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가 조사한 A씨는 혈액형이 용의자와 같은 AB형이며 특수부대 복무 경력이 있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수감됐다가 작년에 가석방 된데다 대리운전 경험이 있고 안경을 착용해 한때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연합뉴스

수능비관 쌍둥이 여고생 자살

10일 오전 4시10분께 경남 창원시 상남동 모 아파트 현관 주변에서 A(18·고3년)양 등 여고생 쌍둥이 자매 2명이 피를 흘린 채 숨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50분께 휴대전화를 통해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동생하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은 이들이 수능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 고민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에 따라 수능 성적을 비관해 아파트 고층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순천 명신대학은?

부부가 이사장·총장, 아들은 부총장 딸 대학원장, 조카가 총무처장 맡아

순천에 자리한 명신대학교는 재학생 1천53명, 교수 43명, 직원 10여 명에 불과한 '초미니 대학'이다.

지난 1983년 4월19일 설립된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2000년 3월1일 4년제 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산업디자인학과 ▲피아노과 ▲전자계산과 등 3개 학과 입학정원 100명으로 개교했다. 이후 학과 증설을 통해 현재 5개 계열에 11개 학과가 개설돼 있다. 지난 2월에는 제 4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교 경영은 철저히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 전남도의원인 박모(여·65) 이사장의 남편 이모(78)씨가 개교 이래 총장을 줄곧 맡아왔다. 부총장은 아들(39), 기획실장 겸 대학원장은 딸(36)이다. 학교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처장과 총무계장은 각각 외조카와 조카가 맡고 있다.

경찰은 학교 공금 횡령과 학생들의 등록금 편취, 교수 뒷돈 채용 등이 이 같은 친인척 중심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학의 교훈(校訓)은 '도덕적인 인격인, 자율적인 행동인, 합리적인 전문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명신대 임직원 구성 현황

- 이사장(부인) 박씨(여·65·현 전남도의원)
- 총장(본인) 이씨(78)
- 부총장(아들) 이씨(39)
- 기획실장·대학원장(딸) 이씨(여·36)
- 총무처장(외조카) 윤씨(58)
- 총무계장(조카) 이씨(37)

농촌공사·농협 간부 등 23명 면세유 36만ℓ 빼돌려 유통

목포해경 7명 영장

목포 해양경찰은 10일 돈을 받고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준 한국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오모(47·5급) 계장과 브로커 채모(53)씨, 면세유를 빼돌린 무안군 몽탄농협 박모(43)·김모(43) 과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안모(34)씨 등 목포지역 주유소 업주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에게 돈을 주고 어업허가를 받은 뒤 안씨 등에게 면세유를 판 김모(32)씨 등 어민 16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촌공사 오 계장은 지난 2004년 3월께 1천만원을 받고 채씨가 부탁한 어민 16명에게 영산호 어업허가를 내줬고, 채씨는 허가를 조건으로 김씨 등 어민들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박 과장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최근까지 면세유 16만여ℓ를 빼돌려 안씨 등 주유소 업주에게 넘기고 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주유소 업주들은 박 과장과 어민들로부터 받은 면세유 36만ℓ를 유통시켜 3억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교실 도박 폭행 치사 시교육청, 경위 조사

광주시 교육청은 교실에서 화투 도박을 하던 중 친구에게 맞아 숨진 광주 S고 3년 이모(19)군 사건〈**본보 10일자 7면 보도**〉과 관련, 10일 해당학교에 장학사 2명을 파견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또 우승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 광주시내 61개 전 고등학교의 학생 관리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S고 폭행치사 사건을 계기로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광주 남부경찰은 이날 속칭 '섯다' 도박을 하다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조모(19)군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김여울기자 wool@

고교생이 女초등생 상습 성추행

쌍나팔

○…광주 북부경찰은 10일 아파트 승강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광주 모 고교 2년 이모(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7월 6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A아파트 승강기 내에서 초등학생 김모(8)양을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내를 돌며 6회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것.

○…이군은 어린이가 아파트 승강기에 혼자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몸을 더듬었는데, 경찰은 "범인이 교복을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말에 따라 아파트 CCTV 화면을 분석, 검거.

○…이군은 경찰에서 "어린 학생들을 보고 성적 호기심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